

“5·18 님은 미안마 쿠데타, 광주가 연대해야죠”

미안마 여성 인권 신장 돕는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창정아 대표

3년간 현지인 150명에 인권·위생·직업교육...재봉틀 보내기 운동 “시민운동 도울 방법 찾을 것”...28일까지 메이홀서 특별 사진전

한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국가. 인종학살로 논란이 됐던 나라. 소수민족간 내전이 잦은 나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미안마는 이 정도였다. 하지만 (사)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이하 광아여) 창정아 대표는 미안마 국민들의 현실을 깊이 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안마 전역에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국내실향민)가 많은 것은 물론, 여성 인권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창 대표는 지난 2018년 광아여를 출범시켰다.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여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할을 강화하는 게 목표로, 3년여 동안 미안마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뜻이 맞는 이들 5여명이 소모임으로 시작한 광아여는 현재 100여명 회원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창 대표는 “현지인과 함께 연구를 거듭해 보여

주기적 도우며 그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광아여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한 ‘물루랄라 치치킹킹’ (미안마어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프로젝트가 그 예다. 미안마를 직접 찾아가 3박 4일동안 전쟁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심리치유·상담을 해 주는 프로젝트다. 인권·위생·직업교육 등도 함께 이뤄지며, 지난 3년 동안 해외 현지인 50여명이 찾아와 교육을 받았다.

“군사정권이 우민화 정책을 펼친 탓에 미안마에는 중졸 학력조차 드물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교육에 목말라하고 있죠. 양로원 등에서 상담 기법 훈련과 개인위생 등을 배우면, 이들이 마을로 돌아가 지식을 퍼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렵잖아 1500여명의 미안마 사람들에게 교육이 전파되며 ‘선순환’이 이뤄졌어요.”

창 대표는 특히 위생 교육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돌아봤다.

인신의 원리와 면 생리대 만드는 법, 피임하는 법 등 내용이었다. 우리에게 상식으로 치부될 지

몰라도 현지인에게는 생소하고도 소중한 지식이었다.

“생계 훈련’에 대한 요구도 상당해요.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봉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죠. 후원금을 모아 재봉틀을 구입해 전달하고, 기술훈련과 생계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 대표는 최근 미안마가 코로나19에 이어 군부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탓에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미안마 시민운동은 5·18민주화운동과 너무나 닮아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안마 시민들은 이제 다시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창 대표는 “지금은 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줄 때”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아여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미안마 시민 운동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다”며 “또한 미안마 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아여는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남동 메이홀에서 미안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특별사진전 ‘Save Myanmar’를 연다.

광주 사진작가와 미안마를 연구하는 학자 등



모두 9명이 참여해 미안마 일상과 시민운동 현장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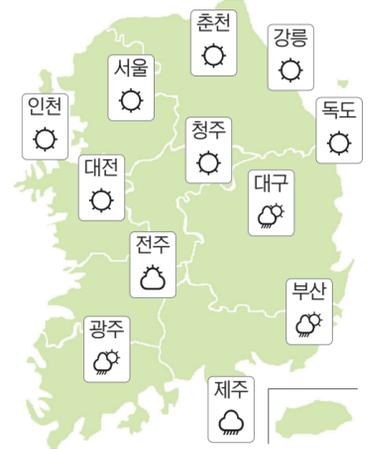
해돋이	07:06	달뜨기	17:11
해질	18:25	달짐	06:36

정월대보름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에 대부분 지역 비 그치겠다.

광주 비온뒤	5/15	보성 비온뒤	4/13
목포 비온뒤	6/14	순천 비온뒤	6/14
여수 비온뒤	6/12	영광 비온뒤	4/15
나주 비온뒤	4/15	진도 비온뒤	6/13
완도 비온뒤	7/12	전주 비온뒤	5/15
구례 비온뒤	4/15	군산 비온뒤	4/15
강진 비온뒤	6/14	남원 비온뒤	3/14
해남 비온뒤	5/13	흑산도 비온뒤	6/10
장성 비온뒤	4/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5~3.0	1.5~3.5	
	면바다(북)	2.0~4.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2.0~4.0	2.0~4.0	
	면바다(서)	2.0~5.0	2.0~5.0	
	면바다(동)	2.0~5.0	2.0~5.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44	01:09
	19:25	13:59
여수	02:25	08:58
	15:01	21:02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좋음

◇주간 날씨

27(토)	28(일)	3/1(월)
2/15	3/17	10/16
2(화)	3(수)	4(목)
4/11	0/12	3/13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개강



2021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개강식이 25일 광주 동구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동구 인쇄거리 소상공인 상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은 4월 까지 매주 대면 또는 비대면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탑선, 지도읍에 코로나 방역 마스크 1만장 기부



(주)탑선(대표 윤정택)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신안군 지도읍을 찾아 덴탈마스크 1만장(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탑선은 국내 최대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마을기업연합 공동체 가치 실현 협약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과 광주시마을기업연합회(회장 장민영)는 지난 24일 광주여성가족재단 9층 대강의실에서 마을리더들의 성평등한 공동체 가치 실현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주)장산이엔지, 동신대에 인재 양성 기금 5000만원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25일 대학 중앙도서관 2층 소회의실에서 (주)장산이엔지(대표이사 박동화)와 토목환경공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주)장산이엔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동신대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동신대 제공>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보 및 보직 발령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김규호 ▲광주전남본부 안전사업처장 최민호

회측

▲김창민·김용순씨 아들 향원군, 박홍순·조광희씨 딸 영은양=27일(토) 낮 12시 광주 웨딩그럽위더스 5층 엘린홀.

▲김승삼(KT한국단열 대표)·김용순씨 아들 동환(한국전력공사)군, 이경보(광남일보 인터넷신문사장)·주경(파리바게트 동림푸른마을점 대표)씨 딸 나은(한국전력공사)양=27일(토) 오후 2시 광주 드림웨딩홀2층CN홀.

부음

▲이민요씨 별세, 노월성(광주일보 동부지국장)씨 빈모상=발인 27일(토) 오전 9시 나주 애향장례식장 1층 VIP특실 061-334-900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15일 乙巳)

☎ 010-9790-8237



36년생 기운 질서를 재편하는 파격적인 것이 낫다. 48년생 용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60년생 긴 가물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에 비유할 만하다. 7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4년생 하늘의 도움이 될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96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86, 90



37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49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리라. 61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73년생 현대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인물은 따로 있느니라. 85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97년생 정확하게 실행해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0, 83



38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74년생 잘 준비되어 있는 지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서 활기를 띠기 시작 한다. 98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79



39년생 무슨 일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51년생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3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75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나 다름없이 옹기 하겠다. 87년생 결기지를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99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을 길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93



40년생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52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64년생 없어진 이후에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6년생 지금 힘이 들더라도 활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88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00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0, 67



41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53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65년생 조금만 자제 한다면 불만함이 사라질 것이다. 77년생 파격적으로 변화한 위상에 당황할 수도 있다. 89년생 좋은 일이 연달아서 줄을 잇게 되는 시세이다. 01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행운의 숫자 : 14, 58



42년생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것 속에 허점이 숨어 있다. 54년생 참으로 절기면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66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78년생 새로운 일의 도모는 불길하니 현실에 충실하라. 90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많이 기는 법이다. 02년생 팔 십은테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리라. 행운의 숫자 : 21, 85



43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55년생 상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전체의 판국에 부합한다. 67년생 우연의 일지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79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91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03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3, 97



32년생 손에 잡힐 듯하면서 연결되지 않아 답답할 수다. 44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56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라. 68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묵은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80년생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다면 끝까지 속 썩일 것이니 주의하라. 92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94



33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45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두고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57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69년생 기초가 되는 저변을 확실히 보는 것이 옳다. 81년생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93년생 돈 쓸 일은 늘어났지만 들어올 곳은 한정적이다. 행운의 숫자 : 34, 77



34년생 재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46년생 망심한다 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58년생 생각을 달리 한다면 새로움이 보일 것이다. 70년생 한정된 대상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동세이다. 82년생 상호 보완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94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행운의 숫자 : 24, 89



35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하라. 47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정성을 다 하라. 59년생 무리하면 아니 되는 법이니 적당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본다. 71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소모품이라 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82